

무슨 활동을 하든, 책을 좋아하게 될 거야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 다채

광주교육청, 6·9월 독서토론회
독서마라톤 스마트폰 일지 나와
전남교육청, 고교생 독서열차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 선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운 지문으로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올 수능에서도 전년도 수준의 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도 국어 영역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긴 글을 빨리 소화할 수 있는 '힘'은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 점에 점에 어렸을 때부터 독서력을 다져놓기 위한 학부모들의 문외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도 이같은 점을 반영, 학생들의 독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독서·토론·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작정 '책 읽어라'고 강요하는 대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을 기르는 전략도 필요하다.

◇독서마라톤 달리기=광주시교육청의 '빛고을 독서마라톤'은 아이들의 독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범시민 독서운동 프로그램이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한 것으로,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1m로 환산해 기록에 따라 구간별로 완주증이 주어진다. 매년 7만명이 레이스에 참여하며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참가자만 35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올해도 ▲거북이(3~4.999km) ▲악어(5~9.999km) ▲토끼(10~14.999km) ▲타조(15~21.096km) ▲사자(21.097~31.645km) ▲호랑이(31.646~42.194km) ▲월계관(42.195km 이상) 코스 등 7개 구간으로 나눠 11월 7일까지 운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이력에 기재할 수 있는데다, 스마트폰에서도 독서 일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오는 6월 10일 열리는 독서·논술 축제는 학교 대표 학생들이 나서 주제 독서를 읽고 주어진 논제에 따라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의 행사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대용의 의산문답 ▲채봉갑별곡 ▲진중권의 미학오디세이1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등을 주제 도서로 정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 예정된 '독서·토론 한마당'도 주제 독서를 읽고 모토별 독서 토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롯, 최인훈의 '광장', 임석재의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김정태 등의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 기술과의 만남' 등이 주제 도서로 꼽혔다. 지난해 '고전에서 길을 읽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열렸던 북콘서트는 '시시한 시 읽기'라는 주제로 바뀌어 운영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책쓰기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 책 출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2박 3일 일정의 숙박형 독서·토론 문화 체험 캠프도 마련해 책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열차타고 독서토론=전남도교육청의 독서 토론수업 활성화 방안 중 첫 손에 꼽는 정책이 '독서토론 열차학교'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독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입소문이 났다.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중국~러시아~몽골 일대를 돌며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몰린다.

올해는 7월 19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중국 단둥~백두산~연길~러시아 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이르쿠츠크~울란바토르 일대에서 진행된다. '약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장정은 전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4명이 참여한다.

전남교육청은 또 '생각을 키우는 독서', '말문을 여는 토론', '삶을 나누는 책쓰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와글와글 독서토론 한마당 ▲고등학생 독서 토론·논술 캠프 ▲중학생 토론대회 ▲논술 사이버 첨삭교실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늘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초등 27·중등 17)를 지정하고 선도교사(350명)를 육성하는 한편, 독서토론 동아리(550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초등 27·중등 17)를 지정하고 선도교사(350명)를 육성하는 한편, 독서토론 동아리(550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청은 독서마라톤·독서토론회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대학 정부 지원사업 희비

동신대 등 산학협력대학 선정
목포대·순천대는 탈락 고배

광주·전남 대학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교육부가 3271억원을 지원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동신대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일반대학이 이름을 올렸고 전남대 중에는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가 명단에 포함됐다. 동신대는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 LINC+ 사업까지 잇따라 따내며 표점 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그나마 목포대는 탈락 대학 간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고령고 등 56개 고교 3학년 학생 1만 7790명이, 전남에서는 96개 고교 3학년 1만 5969명이 응시한다.

◇대학·전통시장 협력 사업도...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17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전문기관' 사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여대는 우산매일시장의 활성화 계획으로 지원 대상 학교로 새롭게 포함된 반면, 호남대는 광주 서부시장의 발전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냈지만 탈락의 쓴 맛을 봤다. 광주여대는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생들의 취업·창업 및 진로에 도움을 주면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됐다.

광주대도 전년도에 이어 사업자로 선정돼 1억3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레시피 개발, 빈 점포를 활용한 놀이방 및 체험장 구축 사업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모사업 목 매는 대학들=전남대는 정병서 총장 취임 이후 기존 단과대학이나 실무부서 중심으로 이뤄지던 방식을 탈피, 대학본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쟁기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 조선대도 대외사업조정위원회를 마련,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책임지도록 했다.

다른 대학들도 열악한 재정난을 타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목을 매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대가 전년도만 해도 '8개 대학역량강화사업' 중 187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조선대는 98억원을 수주하는 등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는 데만 치중, 자칫 지역사회의 답론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문협회, 기자 진로탐색 참가학교 모집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2017 찾아가는 진로탐색 기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 및 학급 150곳을 1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문기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 및 신문활용교육(NIE)'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이다.

교육은 4월 하순~11월(방학기간 제외)까지 무료로 이뤄지며, 전국 초·중·고교(1개 학급 규모)가 참여할 수 있다. 수업시간은 40~50분이다. 교육 희망날짜와 강의주제, 희망신문사 등을 기재한 뒤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 신문협회 회원신문사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2017 찾아가는 진로탐색 기자' 프로그램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방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아이트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건축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앞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6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면 접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문헌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